

주영한국문화원, MZ 한국문학을 세계와 나누다 허희정 작가 『실패한 여름휴가 (Failed Summer Vacation)』 영국 출간 기념 대담 개최

- 언어를 넘는 단편의 힘, 허희정 작가 『실패한 여름휴가 (Failed Summer Vacation)』 영국 출간 기념 문학의 밤

□ 주영한국문화원(원장 선승혜)은 6월 26일(목) ‘이음: 북-토크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허희정 작가의 단편 소설집 『실패한 여름휴가 (Failed Summer Vacation)』의 영국 출간을 기념하여 특별 문학 행사를 개최한다.

○ 주영한국문화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‘이음: 북-토크’는 한국 도서와 문화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조망하며, 국내 외 작가, 창작자, 출판 관계자 등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한국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공유하는 문학·문화 교류의 장이다.

○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“K-POP 팬들이 한국 책을 음악처럼 사랑합니다. 요즘 세상에서 다양한 불안으로 시달려도 그러저럭 팬층은 이유는 MZ 세대의 소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성공한 여름휴가보다 실패한 여름휴가가 유쾌할 수 있는 이유는 허희정 작가의 느낌 있는 미학 덕분입니다.”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.

□ 『실패한 여름휴가 (Failed Summer Vacation)』는 삶의 균열과 감정의 공백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단편 소설집으로, 일상의 틈새에서 마주하는 불완전함과 관계의 어긋남을 조용하고도 예리한 시선으로 조명하여 동세대의 영국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. 허희정 작가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밀도 높은 문장들이 현대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섬세한 정서 묘사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.

○ 이날 대답에는 허희정 작가와 함께, 문학 평론가이자 편집자로 활동 중인 배리 피어스(Barry Pierce)가 참여하여 작품 속 이야기의 구조와 정서, 단편이라는 형식이 가지는 문학적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.

□ 이번 행사는 한국문학이 번역이라는 언어의 다리를 통해 전 세계 독자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. 단편 소설이라는 응축된 서사를 통해 허희정 작가가 포착한 감정의 섬세한 결이 언어를 넘어 어떻게 공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.

□ 주영한국문화원의 5월 이음: 북-토크 행사는 문학을 통해 문화를 전하고, 번역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향하며 한국문학의 울림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뜻깊은 계기다.

□ 올해는 △3월 손원평 작가의 『서른의 반격 (Counterattacks at Thirty)』, △4월 김주혜 작가의 『City of Night Birds』와 실비아 박 작가의 『Luminous』의 영국 출간에 맞춰 대답을 진행하였다. △5월 셰프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다해 웨스트의 레시피 신간 『Balli Balli』의 출간을 계기로 한식의 문화적 의미와 현대적 재해석을 살펴보는 문화적 소통의 장을 구성했다.

- 붙임 1. 한국문학의 밤 6월 행사개요
2. 한국문학의 밤 6월 행사사진

담당 부서	주영한국문화원	책임자	원장	선승혜 (s.sun@kccuk.org.uk)
		담당자	실무관	박강인 (k.park@kccuk.org.uk)

□ 행사

- 행사일시 : 2025년 6월 26일(목) 오후 6시 30분(영국시간)
- 행사장소 : 주영한국문화원
- 초 청 자 : 저자 허희정, 문학 평론가 및 편집자 배리 피어스 (Barry Pierce)
- 행사내용 : 『실패한 여름휴가 (Failed Summer Vacation)』 출간 기념 특별 대담

행사 사진



『Failed Summer Vacation』 영국판 표지



행사 포스터